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8, No. 4, 2016. 11, pp. 53-74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 자산, 소득, 자산 대비 소득의 효과 -*

강 철 희+
(연세대학교)
최 정 은++
(연세대학교)
장 재 혁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경제상황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단위 경제상황을 가구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 자산 대비 소득으로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들이 자선적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지료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 자료인 5 ~ 7차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4,938가구의 3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확률효과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소득의 비율은 자선적 기부에 대해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크기는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연령의 경우 역U자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경제적 요인들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검증해 봄으로써 가구단위 기부행동의 이해를 더욱 제고 및 확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가구 단위 개입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자선적 기부, 자산, 소득, 자산 대비 소득, 패널 토빗, 확률효과

---

*본 연구는 주저자 강철희의 지도로 이루어진 공동저자 최정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1. 서론

우리사회는 물질적 성장을 이뤘으나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불평등, 삶의 질 하락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심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예산에서 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커졌지만,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손원익·박태규, 2008; 김용하, 2013).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서비스 수요 충족의 측면(김형용, 2013), 사회계층과 구성원 간 신뢰구축의 측면(강철희 외, 2010), 그리고 정부 기능의 보완 및 보충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필수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 특히 시민의 기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의 핵심 구성요소인 시민의 기부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강철희·박태근, 2014). '나눔실태 2014(보건복지부, 2014)'에 따르면 2013년 국내 기부총액은 12조 4,859억 원으로 2006년 8조 1,400억 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시민 개인의 참여는 여전히 큰 과제를 지니는 상황이다.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는 지난 1년 간 기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29.9%, 즉 1/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고한다.

시민의 기부와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은 기부자의 소득(Auten et al., 2002), 교육수준(Carroll et al., 2005), 연령(Nichols, 1992), 종교(Chang, 2005), 결혼상태(Brown and Ferris, 2007; Wilhelm et al., 2008), 기부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Havens et al., 2006)이나 심리적 요인(강철희 외, 2009) 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분석 대상에서 시민 개인만을 분석단위로 한정해 온 경향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기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개인 단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경제 단위인 가구 역시 기부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Bekkers and Wiepking, 2007). 해외에서는 기부 단위로 '가구'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Jones and Posnett, 1991; Yen, 2002; Havens et al., 2006), 이러한 경향성이 국내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소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 온 경향(박태규 외, 2008; 한다이, 2014; Auten et al., 2002; Bekkers and Wiepking, 2007)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가구의 재무구조는 실물 및 금융 자산, 근로소득, 부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구의 재무구조나 재무비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분석단위를 가구로 설정하면서 가구의 재무구조가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가계 재무구조를 가구자산과 가구소득으로 구분하고 가구자산은 금융·실물자산으로 그리고 가구소득은 근

로·재산·이전·상속·기타소득으로 세분화 한 후 이들 각 요인이 가구단위의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탐색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인 자산과 소득의 비율 속성에도 관심을 두어 자산 대비 소득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및 관련 연구목표에 기반한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복지자원 중 시민의 기부와 관련해서 실천적으로 무엇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기부행동 관련 이론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기부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며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경제적 시각에서 Sugden(1984)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비용지불', '소비 여부와 무관한 일률적 세금부과', '자발적 기여'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논의하면서, 이 중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는 경제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기부행위는 여러 경제행위 중에서도 소비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기반해서 기부를 소비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크다.

관련해서 Milton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theory)은 기부행동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어떤 사람이 얻는 소득은 일생에 걸쳐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평균적 소득인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실제소득과 항상소득과의 차이인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항상소득이 경제주체의 소비를 결정하게 됨을 강조한다(이준구, 2016). 사람들은 소비를 항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은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가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임시소득의 변화는 소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상소득가설의 내용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Ando와 Modigliani(1963)가 논의하는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 역시 항상소득가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항상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데, 항상소득가설과의 차이점은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에만 주목하는 점에 반해 생애주기이론은 소득과 소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이준구, 2016). 또한 두 이론의 차이점은 항상소득가설이 자산을 항상소득의 결정인자로 다소 불명확하게 간주하고 있는 반면, 생애주기가설은 자산을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명확히 간주한다는 점

이다. 즉 생애주기 이론은 개인 혹은 가계는 일생 동안 벌게 될 전체소득을 고려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경향, 즉 현재와 미래의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축적해 온 자산까지 고려한 소비활동을 하는 경향(김혜련·최현자, 1999)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시각은 사람들의 소비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근로소득과 자산을 모두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케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미래의 소득, 부채 등 다양한 요소가 인간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명시해 준다. 이러한 논의는 소비의 한 형태인 기부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금전소득과 함께 금융·실물자산, 부채 등의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아울러서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소득이 아닌 생애 전체에 걸친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소비를 결정하므로 소득과 자산의 다각적 양상을 고려하면서 기부행동과의 관계를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2) 소득과 기부행동의 관계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져 왔는데, 기부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Reddy, 1980) 가장 주목받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기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다(박태규 외, 2008; 한다이, 2014; Auten et al, 2002; Van Slyke and Brooks, 2005; Bekkers and Wiepking, 2007),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액(박수범, 2006; 변은지 외, 2008; 손원익·박태규, 2008; 박종철·이용운, 2012; 구지윤, 2013; 한다이, 2014)과 기부노력(황창순·강철희, 2002; 강철희 외, 2012b), 기부의 정기성(정수영, 2005) 등의 기부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과는 달리 소득과 기부행동 간 관계가 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Breeze, 2004; Wilhelm et al., 2008). 특히 기부노력에 초점을 두는 Wiepking(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기부노력에 부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다. 또한 소득과 기부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강철희 외, 2011). Rooney 외(2001)와 Smith 외(1995)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기부의사로 설정했을 때 소득계층에 따라 기부의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한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Steinberg 외(2002)는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한 뒤, 각 유형별 소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고 이전 소득은 별반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종속변수의 설정에 따른 차이 발생의 가능성과 함께 소득의 효과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소득을 재산소득, 이전소득, 상속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시킬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3) 자산과 기부행동의 관계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소비, 생산,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포괄하는 개념(최지은 외, 2005)인 자산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효과는 자산가치의 상승이 가구의 항상소득 증가와 연동하여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러한 관계적 기제는 전술한 항상소득가설 및 생애주기가설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나 지출에 대한 자산의 효과는 경제학의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지만, 기부행동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자산에 대한 측정에서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강철희와 박태근(2014)의 연구에서만 자산의 기부행동에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유동자산이 자선적 기부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에는 유동자산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존재하는데, 위의 연구에서도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 효과를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검증해 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자산과 관련된 현재 연구의 상황은 자산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가구의 자산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해 내면서 각 자산 형태가 기부행동에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4) 기타 영향 요인에 대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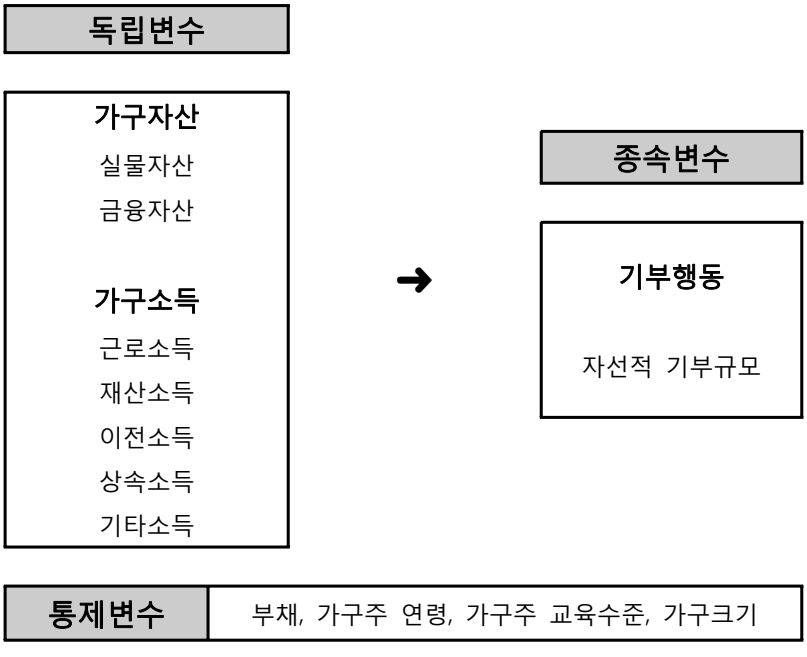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과 함께 선행연구들은 기부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연령(강철희·주명관. 2008; 홍종필·김유경. 2004; 이창식·송국범 2013; Van Slyke and Brooks, 2005; Drollinger, 1995; 오단이·김사현, 2012), 교육수준(유수진, 2000; 손원익·박태규, 2008; 강철희, 2011; Bekkers, 2004; Brown, 2005; Brown and Ferris, 2007), 가구크기(강철희·박태근, 2014; Yen, 2002; Hung, 2004), 성별(Eisenberg, 1992; Anderson, 1993; Andreoni, 2001; Belfield and Beney, 2000; Van Slyke and Brooks, 2005), 종교(박수범, 2006; 손원익·박태규, 2008; 황창순·강철희, 2002; 박수범, 2006; 손원익·박태규, 2008; 강철희 외, 2011; Banks and Tanner, 1999), 결혼상태(Bekkers, 2004; Brooks, 2005; Feldman, 2007; Whihelm et al., 2008) 및 취업상태(강철희 외, 2012b; 김지혜 외, 2012)와 같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역시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보고한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에 대한 태도나 인식((Brown and Ferris, 2004; Bekkers, 2004; Brehm and Rahn, 1997; Putnam, 2000; Veenstra, 2003), 자원봉사 참여경험(강철희 외, 2011; 김유나, 2002: 오혜진, 2002), 사회적 네트워크(Wilson and Musick, 1998; Bryant et al.; 2003; Mcpherson et al., 1992) 역시도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보고한다.

이렇듯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기부행동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분석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범위에 맞춰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반영되고 통제되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기부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를 가구로 두고, 가구의 자산 및 소득 유형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독립변수의 구성에서 가구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그리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상속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자산 대비 소득 변수의 영향력도 고려한다. 종속변수인 기부행동과 관련해서는 자선적 기부의 규모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전 연구들에서 주목해온 부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크기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고, 세부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자산의 각 유형변수는 자선적 기부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가구소득의 각 유형변수는 자선적 기부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자산 대비 소득비율은 자선적 기부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2012년에서 2014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도시에 거주 중인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되는 조사이다. 재정패널조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되며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 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재정패널자료는 가구용,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본 조사에서는 가구용, 가구원용 자료를 결합해서 구성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3개년도 조사자료의 표본 가구를 연도별로 보면, 4,740가구(5차년도), 4,756가구(6차년도), 4,807가구(7차년도)이다. 그리고 7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표본 유지율이 78.6% 정도인 자료이다.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자선적 기부는 한 가구가 1년 동안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 정당, 기타분야에 기부한 기부금 총액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에서 종교적 기부는 제외된다. 자선적 기부금 총액은 가구 단위로 기부 영역별 기부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 측정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자산과 가구소득, 자산 대비 소득이다. 가구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그리고 가구소득은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상속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화시켜서 측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그림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한편 자산 대비 소득은 가구별 소득의 총액을 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였다.

가구자산	금융자산	예・적금(CMA 포함),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타지 않은 계, 타인에게 대여해준 돈 등의 총액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 등 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의 기타 자산 등의 총액
가구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의 임금,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의 총액
	재산소득	금융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금, 매매차익 등)과 부동산자산소득(임대료, 매매차익 등)의 총액
	이전소득	연금, 사회보험, 공적이전소득(예: 정부보조금. 단, 재해・재난으로 인한 1회성 이전소득은 제외)의 총액
	상속소득	타가구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
	기타소득	근로, 재산, 이전, 상속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총액

〈그림 2〉 가구자산과 가구소득의 하위변수

(2)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반영하고 동시에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바탕으로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주의 특성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및 가구 부채 등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주의 특성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가구주로 표시된 인원의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그리고 가구의 특성은 가족구성원 수로 측정된 가구크기로 측정하였다. 가구부채는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말에 보유한 부채[1]의 잔액으로 측정하였다.

(3) 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민인식·최필선, 2012a), 분석의 결과는 주요 변수들의 VIF 값이 모두 10보다 작고 평균이 1의 근사치로 나타나고 1/VIF 값 역시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주요 변수의 VIF 분석 결과

변수	VIF	1/VIF
금융자산	1.27	0.789946
실물자산	1.83	0.547082
근로소득	1.67	0.599384
재산소득	1.17	0.854365
이전소득	1.15	0.867019
상속소득	1.01	0.994762
기타소득	1.03	0.966561
자산 대비 소득	1.02	0.985196
부채	1.47	0.678938
가구주 연령	1.92	0.521974
가구주 교육수준	1.89	0.529111
가구크기	1.34	0.745237
Mean VIF	1.40	

1)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임대보증금, 기타 부채 등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분석을 위해 패널 토빗 모형[2)]을 확률 효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률효과로 토빗 모형을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룹 간 모형은 그룹별 평균만을 사용해 추정량을 도출하고,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 얻어진 추정량은 그룹 간(between) 정보와 그룹 내(within) 정보를 모두 사용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설명변수(time invariant variable)에 대한 추정치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추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12b).

두 번째, 패널토빗모형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가 종속변수인 기부금액에 '0'으로 표시한 비율이 85%로 나타나 OLS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자가 기부금에 대한 응답을 할 당시에 정확한 응답을 못하였거나 설문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 영역이 없었던 관계로 기부금이 '0'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가 좌측중도절단(left-censoring)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0'으로 표기된 것의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토빗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비선형모형인 패널토빗모형은 어떤 변수의 계수 자체가 해당 변수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접근을 사용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2c).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비교의 관점에서도 탐색해 보았다.

4.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938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26.29%로 가장 많고, 가구주의 교육수준 즉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2.16%)과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29.55%)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 가구(26.00%)가 가장 많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으로 측정했는데, 연간 경상소득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가구가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빗 1모형은 각 변수들이 기부의 확률 및 기부 규모에 동일한 방향성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분석으로 헤크먼 검증을 시행하여 실제로 각 변수의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각 변수의 방향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합산해 평가하였으며 1억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46.84%로 가장 많았고, 7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가구(1.86%)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4,938)

변수		구분	빈도	비율
가구주 특성	연령	20대	160	3.24
		30대	842	17.05
		40대	1,298	26.29
		50대	1,121	22.70
		60대	706	14.30
		70대 이상	811	16.42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 포함)	222	4.50
		초등학교	576	11.66
		중학교	478	9.68
		고등학교	1,588	32.16
		대학교(4년제 미만)	393	7.96
		대학교(4년제 이상)	1,459	29.55
		대학원 이상	222	4.50
가구 특성	가구원	1명	910	18.43
		2명	1,284	26.00
		3명	1,096	22.20
		4명	1,264	25.60
		5명	313	6.34
		6명 이상	71	1.43
	경상소득	1천만 원 이하	1,234	24.99
		1천만 원 ~ 3천만 원	1,614	32.68
		3천만 원 ~ 5천만 원	1,058	21.43
		5천만 원 ~ 7천만 원	553	11.20
		7천만 원 ~ 9천만 원	266	5.39
		9천만 원 이상	213	4.31
	자산	1억 원 이하	2,313	46.84
		1억 원 ~ 3억 원	1,632	33.05
		3억 원 ~ 5억 원	520	10.53
		5억 원 ~ 7억 원	206	4.17
		7억 원 ~ 9억 원	92	1.86
		9억 원 이상	175	3.55

2) 종속변수 관련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 규모와 함께 기부 여부까지도 살펴볼 필요

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기부 규모를 살피기 전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 기부여부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가구는 총 4,938가구 중 2012년 572가구(12.27%), 2013년 656가구(14.00%), 2014년 842가구(17.7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에서 보고되는 29.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3〉 기부 참여 여부

(n=4,938)

기부 유형		2012	2013	2014
자선적 기부	빈도(가구)	572	656	842
	비율(%)	12.27	14.00	17.76

자선적 기부에 대한 가구별 기부의 규모는 〈표 4〉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상 가구 전체를 고려했을 때 자선적 기부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에는 전체 가구의 기부금 평균이 18.65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가구당 약 1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의 증가와 더불어 표준편차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고액기부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기부 규모

(n=4,938)

기부 유형	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선적 기부 (만 원)	2012	7.58	53.72	0	2,300
	2013	9.48	53.26	0	1,200
	2014	18.65	101.38	0	2,500

3)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구의 유형별 자산과 소득, 그리고 자산과 소득의 비율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형별 자산을 살펴보면, 전체 4,938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3,554만원, 실물자산의 평균금액은 약 2억 3,89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은 평균 3,640만원(최댓값 9억 5,535만원)이고, 이전소득의 평균은 23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은 평균이 156만원인데 최댓값은 1억원이고, 재산소득은 평균 146만원이나 최댓값은 6억원으로 분포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속소득은 평균은 102만원이나 최댓값은 6억 5천만 원으로 재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분포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n=4,93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자산 (만 원)	금융자산	3,554	8,833	1,000	0	230,000
	실물자산	23,894	38,316	13,000	0	1,043,000
소득 (만 원)	근로소득	3,640	3,699	3,000	0	95,535
	재산소득	146	882	0	0	60,000
	이전소득	235	552	0	0	9,600
	상속소득	102	1,540	0	0	65,000
	기타소득	156	506	0	0	10,000
자산 대비 소득		0.77	3.91	0.22	0	231.5

4) 연구모형의 검증

(1) 자선적 기부에 대한 패널토빗 분석의 결과

자선적 기부에 대한 경제상황 요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둔 본 연구모형을 패널토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Wald 카이자승을 통한 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형별 자산 가운데서는 실물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금융자산만이 자선적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단위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의 자선적 기부 규모가 커지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서 유형별 소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형별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자선적 기부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단위에서 이들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자선적 기부 규모가 커지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흥미로운 변수라 할 수 있는 자산 대비 소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 변수의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영향력은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에 비해 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클수록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줄어드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에서 소득과 자산의 비중을 고려하면서 자선적 기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동일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라 해도 소득에 비해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구의 자선적 기부의 가능성은 규모의 측면에서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의 부채규모는 자선적 기부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가구주의 특성 변수 중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모두 자선적 기부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규모가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고, 연령의 경우에는 역 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규모가 더 커지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연령의 이러한 영향력은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크기의 경우에도 자선적 기부규모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선적 기부규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는 결과이다.

〈표 6〉 자선적 기부에 대한 패널토빗분석의 결과

(n=4,938)

자선적 기부규모	coef.	표준오차	z값	p > | z |
금융자산	0.001 **	0.000	3.33	0.001
실물자산	-0.000	0.000	-0.46	0.643
근로소득	0.014 ***	0.001	14.72	0.000
재산소득	0.007 *	0.003	2.54	0.011
이전소득	0.034 ***	0.006	5.30	0.000
상속소득	-0.001	0.002	-0.49	0.627
기타소득	0.007	0.006	1.23	0.219
자산 대비 소득	-3.380 **	1.134	-2.98	0.003
부채	0.000	0.000	1.54	0.125
가구주 연령	6.844 **	2.404	2.85	0.004
가구주 연령^2	-0.080 ***	0.023	-3.52	0.000
가구주 교육수준	35.134 ***	3.312	10.61	0.000
가구크기	8.054 *	3.439	2.34	0.019
Log likelihood	-16516.739			
Wald chi^2	757.48 (13)			
Prob > chi^2	0.0000			

*p〈0.05, **p〈0.01, ***p〈0.001

(2) 한계효과 분석

비선형모형인 토빗모형의 경우, 어떤 변수의 계수값이 해당변수의 한계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공식에 따라 한계효과를 다시 계산해야만 효과의 크기를 비교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c).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금융자산의 경우 1만원 증가할 때 기부금액은 약0.01%가 증가되는 관계이고, 유형별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각 1만원 증가할 때 기부금액이 각각 0.14%, 0.07%, 0.34%씩 증가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대비 소득의 경우 자산 대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선적 기부금액이 약 33.43%가 감소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일정 연령까지는 가구주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기부 금액이 67.67%씩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로는 0.79%씩 감소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변수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금액은 약 3.5배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명 증가할 때 기부금액은 약 79.64%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통제변수 중에서 자선적 기부금액에 가장 큰 변화를 유발하는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고, 그 다음이 가구크기와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과 소득의 변수들 중에서는 자산 대비 소득의 변수가 자선적 기부금액에 가장 큰 변화를 유발하는 변수이고, 그 다음이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자산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제시되는 흥미로운 바는 가구의 자산 및 소득과 관련해서 자선적 기부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개별 변수가 아니라 자산에 대비한 소득의 비율 변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이 변수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큼을 제시한다.

〈표 7〉 한계효과 분석

(n=4,938)

구분	E(y*)	
	한계효과	p > | z |
금융자산	0.0001 **	0.001
실물자산	-0.0000	0.643
근로소득	0.0014 ***	0.000
재산소득	0.0007 *	0.011
이전소득	0.0034 ***	0.000
상속소득	-0.0001	0.627
기타소득	0.0007	0.219
자산 대비 소득	-0.3343 **	0.003
부채	0.0001	0.125
가구주 연령	0.6767 **	0.004
가구주 연령^2	-0.0079 ***	0.000
가구주 교육수준	3.4741 ***	0.000
가구크기	0.7964 *	0.019

*p<0.05, **p<0.01, ***p<0.001

5. 결론 및 함의

우리 사회에서 기부에의 관심과 실천이 날로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춰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 역시도 확장되고 심화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달리 개인이 아닌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기부행동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연구의 관심을 두고 소득과 자산의 자선적 기부에의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유형별 소득, 유형별 자산, 자산 대비 소득 각각의 기부행동에의 영향을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자산 중에서는 금융자산이 자선적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속소득, 기타 소득, 부채 및 실물 자산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의 각 유형 중에서는 이전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의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보다도 이전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는 연금 등의 보다 안정적 소득을 갖는 가구에서 자선적 기부에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제 유형의 소득의 영향력을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같은 항상소득이 자선적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같은 임시소득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은 자선적 기부에 별반 영향력을 갖지 않고 금융자산만이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행위에서 자산효과가 발생한다는 생애주기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하게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자산은 금융자산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자산 대비 소득의 영향이 존재하는데 그 방향은 부적인 방향이란 것이다. 즉 가구의 재정구조에서 자산에 대비해서 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수의 영향력이 유형별 소득의 영향력 및 금융자산의 영향력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을 평균값으로 고정하고 소득도 평균값으로 고정한 후 이 비율의 영향력을 보면 자선적 기부의 규모에서 각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절댓값도 아닌 소득과 자산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계효과를 통한 분석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 유형의 소득이나 자산보다는 자산과 소득의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항상소득가설 및 생애주기이론의 논의 구조 내에서 소득과 자산의 비율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모형에서 통제한 가구주 특성변수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자선적 기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져 온 바와 같이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그리고 가구의 규모가 자선적 기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수준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과 함께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인 시사점과 함께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시사점도 다소 갖는데, 이는 민간자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보다 주목해서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안정적 소득을 갖는 인구 및 금융자산을 갖는 인구란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소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직장들을 중심으로 한 접근 그리고 금융자산에의 접근성을 가능케 하는 금융권을 통한 접근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해 내야 하는 과제일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해 준다. 이를 특히 연령 및 교육수준과 관련짓는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득을 지니는 연령대라 할 수 있는 30, 40, 50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고등교육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대상층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그리고 1억 이상의 기부를 이끌어 내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의 성공 적 확장 현황[3]으로부터도 인식할 수 있듯이, 고액의 기부를 행할 수 있는 대상층 특히 그러한 기부를 행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대상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전략,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니는 금융권과의 연계전략을 통한 접근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일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의 의미를 지니는 본 연구 역시 재정패널조사 자료 즉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제한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타심, 종교성, 신뢰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부금액에 초점을 두며 기부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금액과 더불어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기부 정기성, 기부 기간, 기부 충성도 등의 다양한 변수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를 균형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가 확장 및 심화되어 우리 사회 민간기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3) 회원 수: 1221, 누적약정금액: 1,308억원 (2016년 7월 4일 기준)

참고문헌

강철희, 1998,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0.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강철희,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강철희 · 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강철희 · 고언정 · 정혜영, 2009, “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215-254.

강철희 · 김유나 · 조주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05-234.

강철희 · 조승호 · 안성호, 2011, “저소득층의 기부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88-120.

강철희 · 김미희 · 허수연, 2012a,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2(3): 191-220.

강철희 · 최명민 · 김수연, 2012b,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강철희 · 허영혜 · 최영훈, 2013,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341-365.

강철희 · 박태근, 2014, “가구재정 지표와 기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부영역에 따른 비교”, 『사회복지정책』, 41(3): 1-25.

강철희 · 편창훈 · 오장용, 2015a,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보완재(complement) vs. 대체재(substitute) 검증”, 『한국사회정책』 22(2): 195-226

강철희 · 황지민 · 오양래, 2015b,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2.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93-122.

김용준 · 김주원, 2005, “대학기부자의 기부의도, 기부만족, 기부정기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마케팅연구』, 20(4): 57-89.

김용하, 201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지』, 15(2): 31-59.

김유나, 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 논문.

김형용, 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87-113.

김혜련 · 최현자, 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주거보유형태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10): 91-106.

민인식 · 최필선, 2012a,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민인식 · 최필선, 2012b,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민인식 · 최필선, 2012c, 『STATA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박수범, 2006,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137-162.
박종철・이용운, 2012, “소득수준과 자아해석 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2): 107-124.
박태규・윤병호・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변은지・이종은・이경은, 2008, “우리나라 부유층의 기부 수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1): 137-167.
보건복지부, 2014, “나눔실태 201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2014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원익・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아름다운재단, 2012, Giving Korea 2012.
양연선, 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최적소비선: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을 기초로”.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오단이, 2007, “금전적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위 논문.
오단이・김사현, 201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61-84.
유수진, 2000,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준구. 2016. 『경제학 강의』. 서울: 문우사
이창식・송국범, 2013,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12): 725-734.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정영석, 2000, “자선 행위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 개별 가구의 기부 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통계청, 2015, “2015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최지은・정순희・여윤경, 2005, “소비자의 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 55-71.
한다이, 2014,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홍종필・김유경, 2004,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 행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효과에 관한 연구: e-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8(1): 256-301.
황창순, 2001, “개인 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0년 기부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2001: 45-63.
황창순・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Ando, A. and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Andreoni, J. 2001, “The economics of philanthropy. In Smelser, N. J. and Baltes, P. B(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London, Elsevier*, pp.11369-11376.
Anderson, V. L. 1993,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among Holocaust rescue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 43-58.

Auten, G. E., Sieg, H., and Clotfelter, C. T. 200,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371-382.

Banks, J., and Tanner, S. 1999, "Patterns in household giving: Evidence from UK data.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0(2): 167-178.

Bekkers, R. 200,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Utrecht: Utrecht University.*

Bekkers, R., and Wiepking, P. 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Utrecht: University of Utrecht.

Bekkers, R., and Wiepking, P. 2011,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philanthropy eight mechanisms that drive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5): 924-973.

Belfield, C. R., and Beney, A. P. 2000, "What determines alumni generosity? Evidence for the UK", *Education Economics*, 8(1): 65-80.

Breeze, B. 2004, "Widow's mite or widow's might? The relative giving of rich and poor in the UK", *In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Los Angeles*, USA.

Brooks, A. C.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5.

Brown, E. 2005, "College, social capital, and charitable giving", *Gifts of time and money in America's communities*, pp.185-204.

Brown, E. and Ferris, J. M. 2004,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Research Paper-20, The Center on Philanthropy & Public Policy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rown, E., and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Bryant. W. K., H. J. Slaughter, H. Kang and A. Tax. 2003, "Participat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Carman, K. G. 2003, "Social influences and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Evidence from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workplace", *Stanford University.*

Carroll, J., McCarthy, S., and Newman, C. 2005, "An econometric analysi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3): 229-249.

Chang, W. C. 2005, "Determinants of donations: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Developing Economies*, 43: 217-234.

Danko, W. D., and Stanley, T. J. 1986, "Identifying and reaching the donation prone individual: a nationwide assessment",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2(1-2): 117-122.

Drollinger, T. L. 1995, "Financial resources of elderly couples and likelihood of volunteering", *Proceeding of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NewOrleans, Louisiana*, pp.95-105.

Drollinger, T. L., and Johnson, D. P. 1995, "Life 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106-111.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2): 213-242.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Hall, H. 2004, "Gender differences in giving: Going, going, gone?: Fundraising as a profession: Advancement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43: 71-81.

Havens, J. J., O'Herlihy, M. A., and Schervish, P. G. 200, "Charitable giving: How much, by whom, to what, and how",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2: 542-567.

Hrung, W. B. 2004, "After-Life Consumption and Charitable Giving",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3): 731-745.

Independent Sector. 200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 from a National Survey.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Jones, A., and Posnett, J. 1991, "Charitable donations by UK households: evidence from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Applied Economics*, 23(2): 343-351.

Mcpherson, J. M., Popierlarz, P. A. and Drobnic, S. 1992,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al Dynam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2): 153-170

Mesch, D. J., Rooney, P. M., Steinberg, K. S., and Denton, B. 2006, "The effects of race,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India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4): 565-587.

Nichols, J. E. 1992, "Targeting older America", *Fund Raising Management*, 23(3): 38-51.

Penner, L. A., Dovidio, J. F., Piliavin, J. A., and Schroeder, D. A. 2005, "Prosocial behavior: Multilevel perspectives", *Annu. Rev. Psychol.*, 56: 365-392.

Rooney, P. M. Steinberg, K. S., & Schervish, P. G.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51-568

Reddy, R. D. 1980, "Individual philanthropy and giving behavior", *Participation i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pp.370-399.

Schervish, P. G., and Havens, J.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8(3): 235-260.

Smith, V. H., Kehoe, M. R., and Cremer, M. E. 1995,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1): 107-126.

Steinberg, R., Wilhelm, M., Brown, E., & Rooney, P. 2002, "Inheritance and Charitable Do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Indiana University.*

Steinberg, R., and Wilhelm, M. 2005, "Religious and secular giving, by race and ethnicity",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2005(48): 57-66.

Sugden, R. 1984, "Reciprocity: the supply of public goods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The Economic Journal*, 94(376): 772-787.

Van Slyke, D. M., and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Wiepking, P. 2007, "The philanthropic poor: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the relative generosity of lower income household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8(4): 339-358.

Wilhelm, M. O., Brown, E, Rooney, P. M., and Steinberg, R.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0-11): 2146-2156

Yen, S. T. 2002, "An econometric analysis of household donations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Letters*, 9(13): 837-841.

Abstract

Giving Behavior of Households
- Effects of Asset, Income, and the Ratio of Income to Asset -

Kang, Chul Hee
(Yonsei University)
Choi, Jung Eun
(Yonsei University)
Jang, Jae Hyuk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to verify influence that economic situations of a household unit have on donation behavior, after economic situations of a household unit were measured with income and assets by type and income to assets, effect which each variable has on secular giving was verified. This study used 3-year panel data of a total of 4,938 households based on the fifth to seventh year data as investigation data from 2012 to 2014 among data of financial panel investigation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s an analysis method, a random effect tobit model was used. At the analysis result, it appeared that as scales of financial assets, earned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become larger, the amount of donation increased. Also, it was represented that rates of income to assets had negative influence on secular giving. In case of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levels of householders and sizes of houses had relation of a positive direction. In case of ages, it appeared that they had inverted U-type relation.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at understanding of donation behavior of a household unit can be increased and expanded more and also implications related to intervention strategies of a household unit to expand sharing culture can be extracted by verifying influence which economic factors of a household unit have on donation behavior based on panel data.

Key words: secular giving, asset, income, the ratio of income to asset, panel tobit model, random effects

〔논문 접수일 : 16. 08. 13, 심사일 : 16. 08. 26, 게재 확정일 : 16. 09. 03〕